

제5절 기타 유적과 문화재*

1. 입 석

입석은 길쭉한 자연석이나 그 일부만을 가공한 거석을 똑바로 세워 기념물 또는 신앙대상물로 삼는 유적을 말하며, 선돌이라고도 한다. 고인돌·열석과 함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고학에서 일컫는 입석은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유적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입석은 세계 도처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와 서유럽에 밀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밖에도 근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가 미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고인돌 등 다른 여러 종류의 거석유적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분포에서도 서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입석은 고인돌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 분포는 거의 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넓은 분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단순한 구조와 대부분 단독으로 세워지는 유적으로서의 취약성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세우거나 극히 일부만을 치석하여 세운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원래부터 있던 거석을 입석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형태는 주로 둥근뿔(원추)이나 둥근기둥(원주) 또는 모난뿔(각추)이나 모난기둥(각주)이지만 드물게는 넓적한 판석도 있으며, 높이는 1~2m 되는 것이 많고 서산 입석동의 경우처럼 6m 가 넘는 것도 있다.

기능은 대체로 입석에 얽힌 전설이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 또는 예배의 대상물로서의 성격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입석 자체가 가지는 외형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뚝 솟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외경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그 형태가 흡사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여 생식기 숭배 같은 원시신앙과 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입석에 대한 외경 또는 예배,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은 원시사회에서 이루어진 정령숭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입석은 처음 세워진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기념물 또는 신앙대상물의 기능을 유지해왔는데, 근세에 이르러서 여기에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벗짚이나 새끼로 묶는 등의 인화 또는 신격화시켜 마을의 수호신, 기자암(祈子巖) 같은 역할도 담당해왔다.

순천시의 입석과 장승은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승주읍 유평리 유천 입석

마을 앞에 입석 1기(基)가 있는데 자연석을 세운 것이다. 크기는 높이 90.5cm, 둘레 90cm이며, 가슴과

* 제5절은 최인선 집필임.

아랫도리에 흑처럼 불쑥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 인체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다.

2) 승주읍 남강리 남정 입석

남향인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건너 길가에 입석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입석을 '탑'이라고 부르며, 마을의 액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큰 입석은 높이 90cm, 너비 25cm, 두께 20cm이고 작은 입석은 높이 65cm, 너비 35cm, 두께 20cm이다.

3) 승주읍 두월리 두모 적석입석

두월리 두모 입석은 두모마을 150m 전방 길 좌측의 냇가 건너편 논가에 있다. 이 입석은 활석을 타원형 형태(높이 270cm, 지름 340cm)로 쌓은 후 정상부에 소형의 주형입석(높이 90cm, 너비 50cm, 두께 30cm)을 세워놓은 형태이다. 이러한 적석(積石) 형태의 입석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내륙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몽고에서 기원한 북방문화의 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입석은 두모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입구가 허전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돌탑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보존상태는 동쪽 하단부분만 약간 허물어져 있을 뿐 양호한 편이다.

4) 낙안면 동내리 입석

마을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그 위에 걸쳐 있는 다리의 안과 밖에 입석이 1기씩 서 있다. 그 형상이 거칠게 다듬은 개처럼 보여 '개바구'라고 부르는데 안쪽에 있는 것을 '암개'(높이 55cm), 바깥쪽에 있는 것을 '수개'(높이 80cm)라고 부른다. 옛날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낼 때 이곳에 제물을 바치고 매구를 쳤다고 하며, 주민들은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5) 황전면 회룡리 신기 적석입석

마을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좌측에 적석입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처럼 크게 개축하였다고 한다. 적석의 높이는 260cm, 둘레는 800cm이고 적석 위에 높이 40cm의 주형입석이 있다. 이는 마을로 들어오는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6) 황전면 회룡리 각문 입석

마을 도로 옆에 있는 이 입석은 그 위에 북처럼 생긴 원통형 바위를 올려놓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를 '북바우'라고 부르고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270cm, 너비 200cm이고 위에 올려진 바위는 높이 50cm, 너비 90cm이다. '북바우'에는 두 개의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앞산이 선비인데 옛날에 그 선비가 앉아 북을 쳤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용이 용소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북바우에서 북을 친 후 승천하였다고 한다.

7) 황전면 덕림리 미초 적석입석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적석입석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꼭대기에 소형의 주형입석을 세웠다. 전체 높이는 약 4m에 달하고 둘레는 11m이다. 주민들은 이를 '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마을 앞산이 마을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서 산이 떠밀려 갔기 때문에 산과 마을을 잇는 의미에서 '탑'을 세웠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입석이 마을의 액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당산제를 지낼 때 신체로 여기고 봉사(奉祀)하고 있다.

8) 황전면 죽내리 내동 적석입석

마을 입구의 도로 좌측에 있는 이 적석입석은 '탑'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정상에는 주형입석 대신에 콘크리트로 만든 4H 표시판이 있다. 크기는 높이 200cm, 둘레 640cm이다. 한국전쟁 전까지 당산제를 모셨으며, 액막이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9) 송광면 오봉리 오리치 입석

마을 앞에서 약 50m의 입구 도로변에 당산이 있는데 이 당산나무 밑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크기는 높이 100cm, 너비 40cm, 두께 25cm, 둘레 120cm이다. 이 당산나무에서 약 50m 전방의 도로변에 석장승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10) 송광면 오봉리 옥령 입석

마을 앞의 당산나무 아래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95cm, 너비 35cm, 두께 30cm이다. 당산나무 아래 모정(유선각)이 있으며, 현재 당산제는 지내지 않고 있다.

11) 송광면 후곡리 입석

해발 약 900m의 모후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은 본래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두 곳이어서 양쪽에 적석으로 탑을 세웠다. 마을 앞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길가의 양쪽에 적석입석 2기가 있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없앴다고 하며, 마을 뒤로 5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원추형의 적석입석 1기(높이 2m)만 현재 남아 있다. 이들 입석은 수구막이와 마을의 경계표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2) 송광면 덕산리 죽산 입석

마을 입구 도로 우측에 오제석(烏啼石)이라고 새겨진 입석 하나가 서 있다. 자연석에 글씨를 새긴 이 입석은 지반이 넓은 바위에 세워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관리의 학정에 못 이긴 어떤 사람이 그 관리 선친의 유골을 훔쳐 땅에 감추어두었다. 마침내 그 관리는 선친의 유골이 도난당한 것을 알고 백방으로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가 한 곳에서 몹시 울고 있어 이상히 여긴 관리가 땅을 파보자 그 밑에 유골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까마귀에 대한 공덕비를 세운 것이 현재의 오제석이라고 한다. 이 오제석의 크기는 높이 115cm, 너비 55cm, 두께 24cm이다.

13) 송광면 우산리 내우 입석

이 입석은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아래에 있었던 적석입석이다. 마을이 주암댐 건설로 수몰되게 되자, 전남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현재는 바로 인근에 조성된 고인돌 공원의 입구로 이전하였다. 적석 위에는 2개의 주형입석이 있는데 크기는 큰 것이 70cm, 작은 것이 40cm이다. 모양이 남근석과 흡사해 다산(多産)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14) 송광면 월산리 추동 입석

마을 뒤쪽 논 가운데에 귀목나무 당산이 있고 그 아래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크기는 높이 220cm, 너비 50cm, 두께 30cm이다. 예전에 당산제를 지낼 때 제례를 갖추었다고 한다.